비문학 노베들의 자가진단

1. 칼럼의 목적

국어 수업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비문학이 약하다.”는 식의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는 학생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강의나 교재가 평균적인 학생을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반적인 방법론만 따라하다 보면, 국어가 더욱 추상적이고 감을 잡기 어려운 과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문학 실력 향상 요소의 첫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문학 지문을 단어, 문장, 문장 간 관계, 문단, 문단 간 관계, 글의 구조로 나누어 실제 학생들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 자신의 문제 상황을 요소별로 나눠서 분석합시다.

비문학 독해 역량은 크게 미시적 독해와 거시적 독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적 독해 역량: 개별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
거시적 독해 역량: 전체 글의 구조와 논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러한 미시/거시 독해 역량에 따라 비문학이 문제인 친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미시적인 독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 미시적인 독해는 가능하지만 거시적인 독해를 힘들어 하는 학생들, 둘 다 가능하지만 미시적인 독해와 거시적인 독해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 하는 학생들입니다.

독해 유형 / 노베 유형	미시	거시
매우 노베	X	X
적당히 노베	O	X
노베 호소인	O	O

이제부터 ‘매우 노베, 적당히 노베, 노베 호소인’들을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2-①. '매우 노베'를 알아 봅시다.

먼저 미시적인 독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매우 노베' 친구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매우 노베' 친구들의 습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파악해봅시다. 단어를 모르거나, 그 단어들이 모여 만들어진 문장을 독해하지 못하거나, 문장의 독해는 되지만 문장 간의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요소 / 정도	단어	문장	문장 간 관계
매우매우매우 노베	X	X	X
매우매우 노베	O	X	X
매우 노베	O	O	X

첫째, 단어를 모르는 매우매우매우 노베 친구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친구들은 실제로 어휘를 모르는 상태거나, 알고 있지만 사용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뜻을 모릅니다.
전자라면 어휘 책을 통해 전수조사하듯 공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출을 공부하며 모르는 어휘들을 하나씩 모아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자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뜻은 아는데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예문을 통해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예시를 보고 갑시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①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②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로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③ 보관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것이 좋겠군.
④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⑤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실제로 25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일부 하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이없게 틀렸습니다.
바로 <보기>에 사용된 '조밀'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밀'을 몰라도 문맥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대조를 파악해 봅시다. 가지를 친 구조와 직선형 구조가 대조되고 있고, 여기서 '배열되기 힘들다'와 '배열될 수 있다'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직선형 구조를 설명할 때 '서로 나란히', '한 방향으로'라는 추가 단서가 나옵니다.

왜 이것들이 단서일까요?

'서로 나란히'는 흩어져 있지 않고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다는 뜻이고, '한 방향으로'는 일정한 방향성과 규칙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반면 가지를 친 구조는 불규칙한 형태라서 이런 정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선형 구조가 더 빽빽하게 들어찰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직선형은 잘 정렬되므로 조밀하게 배열할 수 있고, 가지를 친 구조는 불규칙한 형태라서 조밀하게 배열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조밀은 빽빽하게, 촘촘하게라는 의미이며 밀도와 관련된 어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하면 ④번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이 틀렸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밀함은 빽빽함을 의미하고, 이는 곧 밀도가 높다는 뜻이므로 직선형 구조인 ㉯가 더 높은 밀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문맥과 주변 단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미를 추론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아래의 지문에서 '원근'이라는 어휘를 몰랐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2211 어라운드뷰 3문단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근'을 모를 리가 없지만 우리 노베이스들의 심연은 깊고도 어둡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씩 예를 들며 가보겠습니다.

둘째, 문장을 독해하지 못하는 매우매우 노베 친구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친구들은 문장을 독해할 때 극단적인 접근을 보입니다. 너무 크게 보거나,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서 봅니다.

첫 번째 유형: '숲만 보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문장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파악하려 합니다. 그래서 조건절이 나오거나 복잡한 수식절이 2개 이상 등장하는 복합 문장을 만나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숲만 보느라 나무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 '나무만 보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첫 번째와 반대로 문장의 모든 요소를 잘게 분할해서 읽습니다. 단어와 문법 요소 하나하나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체 의미를 놓칩니다. 나무에 집중하느라 숲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두 유형 모두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조건, 인과, 선후, 수식, 한정, 역접 등의 정보 처리 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까요? 같이 예시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2211 어라운드뷰 3문단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조건) /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

- 왜곡 보정이 끝나면(조건) →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선후: 왜곡 보정(선) → 실세계 점들 추정(후)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 단순한 문장 같지만 수식절이 두 번 사용된 문장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읽고 "시점 변환이 필요하구나!" 하고 넘어가면, 시점 변환이 원근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 시점 변환: 원근 효과 X
- 이제 두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합시다.
- 목적: 영상에서 원근 효과 제거
  수단: 시점 변환 (조건: 왜곡 보정 완료)

이처럼 각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들이 이루는 덩어리, 그리고 문장 내에서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너무 크게 보지도, 너무 작게 쪼개지도 말고, 의미 단위별로 묶어서 관계를 파악합시다.

셋째, 문장의 독해는 되지만 문장 간의 연결을 하지 못하는 **매우매우매우 노베 친구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친구들은 문장의 의미는 파악하지만,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왜 같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A 문장의 의미도 알고, B 문장의 의미도 압니다. 하지만 왜 A 다음에 B가 나오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각각의 문장을 점으로는 보지만 그 점들을 선으로 잇지 못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결어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따라서' 같은 연결어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연결어를 그냥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결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이 친구들은 명시적인 연결어가 없으면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읽으며 해야 할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문장의 기능'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문장에는 정의, 예시, 근거, 결론 제시, 주장, 반박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문장의 기능을 정확히 모르면 연결어가 있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결어가 없을 때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개별 문장의 의미는 알지만 글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이 친구들은 시험지에서 마치 표류하듯 떠돌아다니며 문제와 지문을 오가게 됩니다.

다음장의 예시를 통해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같이 봅시다.

2211 어라운드뷰 3문단

① 왜곡 보정이 끝나**면**(조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 선후: 왜곡 보정(선) → 실세계 점들 추정(후)
- 목적: 영상에서 원근 효과 제거
  수단: 시점 변환 (조건: 왜곡 보정 완료)

②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조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비례)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유)

- 문장②는 문장①의 근거(이유)로 제시된 것입니다. 즉, 왜 '원근 효과를 제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 현상'(구체적 예시)을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일반적 서술)로 재진술합니다.
- 문장①과 문장②를 연결(이유)하면 이것이 바로 '원근 효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근 효과 =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원근 효과가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우월 전략입니다.)
- 원근 효과의 문제점 제시(②) → 해결 방안 제시(①)
- 목적: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 획득
  수단: 왜곡 보정 → 3차원 점 추정 → 시점 변환 →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
- 과정순 서술을 활용한 추론
  왜곡 보정(**원근O**) → 3차원 점 추정(**원근O**) → 시점 변환 →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
  (이 추론 과정은 선지를 보고 돌아와서 해도 무방합니다.)